

보도시점 2026. 5. 21.(목) 12:00 / 배포 2026. 5. 21.(목) 08:30
<5. 22.(금) 조간>

AI 서비스 시장 실태조사 실시

- 공정위, 국내 AI 서비스 시장구조 및 경쟁상황, 거래실태 등 분석 추진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5월 21일부터 국내 AI 서비스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외 주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AI 서비스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정위가 2024년에 실시하였던 AI 인프라 구축·AI 기반모델 개발·AI 서비스 제공 등 AI 시장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 및 2025년에 실시하였던 AI 인프라 중 데이터 분야 실태조사에 이어서, 국내 AI 서비스 시장의 거래실태와 경쟁상황 등을 분석·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AI 서비스가 이전보다 더 많은 기능을 실행할 수 있게 되고,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스마트폰·자동차 등 주요 제품과 웹브라우저·SNS 등 주요 서비스에도 AI 서비스가 탑재되어 이용자가 AI 서비스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AI 서비스 탑재는 관련 제품·서비스의 혁신과 경쟁을 더욱 촉진하고, 이용자 편익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으나, 한편으로는 AI 서비스 시장 내 소수 기업에 대한 시장집중 심화 등 경쟁제약 요소와 함께 AI 서비스를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 등 소비자 피해 관련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영국, 프랑스, 호주 등 세계 주요 경쟁당국들도 AI 시장 전체 가치사슬 중 AI 서비스 시장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연구·분석*하고 있다.

* 영국 CMA 등, ‘에이전트형 AI의 미래’ 보고서 발간(26.3월)
프랑스 FCA, 대화형 에이전트 및 에이전틱 커머스 관련 실태조사 등 착수(26.1월)
호주 ACCC, ‘인공지능 분야의 최근 동향’ 보고서 발간(25.12월) 등

국내에서도 대기업 및 글로벌 AI 개발사 외 여러 스타트업이 AI 서비스를 개발·제공하고 있는바, 국내 AI 서비스 시장구조와 경쟁상황 등을 파악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쟁·소비자 이슈 등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고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제87조(서면실태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해당 거래분야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에 앞서 국내외 AI 서비스 개발사 등 산업계 의견과 학계 등 전문가 의견을 함께 수렴하여 실태조사 대상 사업자 및 조사 항목을 선정하였다.

실태조사는 2단계로 나누어서 진행되며, 1단계에서는 국내 이용자들에게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외 주요 AI 서비스 개발사’ 29개 사업자들 및 자신의 제품·서비스에 자사 또는 타사 AI 서비스를 탑재하여 제공하는 ‘국내외 주요 AI 서비스 탑재 제품 제공사’ 17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조사항목은 ▲AI 서비스 사업 현황과 AI 서비스 탑재 관련 거래 현황, ▲AI 서비스 시장 내 경쟁상황, ▲소비자 등에 대한 AI 서비스 제공 방식, ▲경쟁제한 또는 불공정거래 경험 여부 등이다.

그리고 이번 실태조사가 소비자와 맞닿아있는 AI 서비스 시장에 중점을 둔 조사인 점을 고려하여, 2단계에서는 AI 서비스를 실제 이용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AI 서비스 이용 행태 및 제품 등에 탑재되어 제공되는 AI 서비스 관련 소비자 인식 수준 등에 대한 조사를 2026년 7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AI 서비스 시장참여자 및 학계 등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가면서, 향후 경쟁정책 방향을 담은 「AI 하류시장과 경쟁」 정책보고서를 연내 발간하는 등 AI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 | | | |
|-------|------------------|-----|-----|--------------------|
| 담당 부서 | 경쟁정책국 시장감시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구성림 (044-200-4327) |
| | | 담당자 | 사무관 | 임연수 (044-200-4333) |
| | | | 조사관 | 김나경 (044-200-4334) |



1. AI 시장 구조

□ AI 시장은 크게 AI 인프라 구축, AI 개발, AI 구현으로 구분

- (AI 인프라) AI의 데이터 학습·추론 및 결과물 생성 등에 필요한 컴퓨팅 자원, AI의 성능 향상 등을 위한 데이터, AI 개발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인력을 확보·구축
- (AI 개발) 특정 AI 기능을 구현하는 데 기초가 되는 기반모델 구축 또는 다른 기반모델의 미세조정 등을 통해 AI를 개발
- (AI 구현) 기반모델을 활용하여 구현된 AI 서비스를 소비자 및 기업 등 최종 수요자에게 제공 ⇒ 금번 실태조사의 주요 대상

<AI 시장 전체 구조도>



* 자료 출처: 공정위, 「생성형 AI와 경쟁」 정책보고서(2024)

2. AI 서비스 시장 관련 현황

- (AI 시장 민간투자) 2025년 AI 시장에 관한 전세계 민간투자 규모는 약 3,447억 달러 규모에 달하며, AI 인프라 및 모델 등 분야에 대하여 약 1,432억 달러 규모로 가장 큰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

* 자료 출처: 스탠퍼드대학교 인간중심 인공지능 연구소, AI Index 2026 Report('26.4월)

- 2025년 기준 주요 국가별 민간투자 규모는 미국(약 2,859억 달러), 중국(약 124억 달러), 영국(약 59억 달러) 순으로 높게 분석되며, 국내 민간투자는 약 17.8억 달러 규모로서 12위에 위치하는 것으로 분석

- (기업의 AI 활용) 전세계 기업의 AI 활용 현황은 2023년 55%, 2024년 78%, 2025년 88%로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

* 자료 출처: 스탠퍼드대학교 인간중심 인공지능 연구소, AI Index 2026 Report('26.4월)

- (국내 생성형 AI 이용) 2025년 국내 이용자들의 생성형 AI 이용률은 약 31.6%로서, 2024년 13.7%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

* 자료 출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AI 포용 관점에서 본 생성형 AI 이용격차: 인지, 이용, 활용('26.4월)

- 2025년 기준 생성형 AI에 대한 인지율은 약 50.4%로서 2024년 38.1% 대비 12.3%p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며, 인지율과 이용률 간 격차 존재
- 연령대에 따라 구분하면, 20대 및 30대 이용자의 생성형 AI 이용률이 각각 69.5% 및 56.3%로서 다른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
- 경제활동인구 중에는 임금근로자의 생성형 AI 이용률이 39.7%로서 고용주, 자영업자 등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비경제활동인구 중에는 대학(원)생의 이용률이 68.0%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
- 생성형 AI 이용 목적은 정보검색(42.5%), 업무(24.6%), 학업(16.0%), 취미 활동(12.7%), 일상적 대화(4.2%) 순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